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오늘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시간 거룩한 말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Cuando Jesús hubo tomado el vinagre, dijo: Consumado es. Y habiendo inclinado la cabeza, entregó el espíritu.

성경에 많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은 특히나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해주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은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땅에 친히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모든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계속 공부해왔던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던가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특히나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학교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그 교육목표를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공과하는 선생님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전해야되지만 특히 각 분반 선생님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반 아이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Y pondré enemistad entre ti y la mujer, y entre tu simiente y la simiente suya; ésta te herirá en la cabeza, y tú le herirás en el calcañar.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예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여기에 너의 후손 즉 마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과

싸움이 있다 라고 예기 하고 있습니다.

너의 후손은 무었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하죠

그들은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 마귀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여기 잡아두시고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Por tanto, el Señor mismo os dará señal: He aquí que la virgen concebirá, y dará a luz un hijo, y llamará su nombre Emanuel.[b]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되게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I Will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Y Jehová Dios hizo al hombre y a su mujer túnicas de pieles, y los vistió.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주시겠다는 더욱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옷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입었던 옷

염소 새끼의 옷 매끈매끈한 것을 꾸몄었죠 가죽으로 꾸몄습니다.

매끈매끈한 죄를 꾸며주는 가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En gran manera me gozaré en Jehová, mi alma se alegrará en mi Dios; porque me vistió con vestiduras de salvación, me rodeó de manto de justicia, como a novio me atavió, y como a novia adornada con sus joyas.

두 가지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우리를 구원해주셨을 뿐만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6절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6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6 pues todos sois hijos de Dios por la fe en Cristo Jesús;

27.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27 porque todos los que habéis sido bautizados en Cristo, de Cristo estáis revestidos.

창세기 3장 21절에 약속하셨던 그 가죽옷은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마치 야곱이 그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 아버지는 분변치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분변치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에게 다 해줬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입고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으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en quien tenemos seguridad y acceso con confianza por medio de la fe en él;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의인은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일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무얼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죄를 기억지 않겠다 약속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하십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었던 것이 곧 불신이었고 그게 영적인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은

십자가도 없고 주님의 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확실한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방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사단은 빼앗았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던 그 마귀는 똑같은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주고

사람들은 마귀의 그 말을 받는 즉시 교만해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먹음직 하고 보암직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트립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궤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궤궤를 알기 때문에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면은

선생님들이 먼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 합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야 시험받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까지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No penséis que he venido para abrogar la ley o los profetas; no he venido para abrogar, sino para cumplir.

18.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Porque de cierto os digo que hasta que pasen el cielo y la tierra, ni una jota ni una tilde pasará de la ley, hasta que todo se haya cumplido.
하나님은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리라 약속하신데로 주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전히 이룬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율법을 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을 깨뜨려버린겁니다. 우리는 죽기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자를 놓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Porque de tal manera amó Dios al mundo, que ha dado a su Hijo unigénito,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e, no se pierda, mas tenga vida eterna.

17.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Porque no envió Dios a su Hijo al mundo para condenar al mundo, sino para que el mundo sea salvo por él.

주님을 이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고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así también Cristo fue ofrecido una sola vez para llevar los pecados de muchos; y aparecerá por segunda vez, sin relación con el pecado, para salvar a los que le esperan.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구원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써 우리와 함께하심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구원과 우리의 성품구원과 우리의 생활 구원까지

주님은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나 구원을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혼의 구원은 다 이루어주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써 우리의 성품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주님은 끝까지 이루어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estando persuadido de esto, que el que comenzó en vosotros la buena obra, la perfeccionará hasta el día de Jesucristo

우리안에서 착한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은 복음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뿐 만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신일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도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el cual también os confirmará hasta el fin, para que seáis irreprensibles

en el día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너희를 주 예수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들로가 아니라 자로 우리 개인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주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방해하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타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방해 바귀의 박해 마귀의 유혹 그리고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 하시죠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 하느냐?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담대히 하라 왜냐? 주님은 끝까지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편의 영화를 미리 본적이 있어요 그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참 잘되서 두 번 째 보죠

영화 볼 때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상합니다. 왜? 나는 처음 보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위태위태 한 일을 당할 때 앞에서 말합니다.

저사람 안죽는다 왜? 자기는 다 알고 있죠 스토리를 저사람 이렇게 살아난다

정말 긴장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겁니다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쓸데없이 가슴조리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걸 정말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하면은 왜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 해야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 해야 될 것에 대해 말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지저서 나머지 사람으로 두렵게 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골로세서 3장 22절에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Siervos, obedeced en todo a vuestros amos terrenales, no sirviendo al ojo, como los que quieren agradar a los hombres, sino con corazón sincero, temiendo a Dios.

주님을 두려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 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두려워 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 3가지 두려워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Mirad bien, no sea que alguno deje de alcanzar la gracia de Dios; que brotando alguna raíz de amargura, os estorbe, y por ella muchos sean contaminados;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6 no sea que haya algún fornicario, o profano, como Esaú, que por una sola comida vendió su primogenitura.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 할게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 할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운데 잘못된 이단교리에 빠져들어갈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먹고사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배반해버릴 망령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 해야됩니다. 방학때 계속해서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집회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우리에게 나오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집회는 전도하는게 목적이죠 이번에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다녔던 교회가운데 구리교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생들이 74명 출석했는데

새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10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날까지 말씀을 들었던 아이들이 74명이나 구원을

받았는데 기존학생들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끝까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의 전도집회로 구리교회 전도집회는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으로 이번 전도집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교제 참석하는지 더욱더 기도하고

열매맺는 그런 전도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전도집회를 마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